

북유럽 의회연설의 제의적 특성분석: 스웨덴과 덴마크 총리연설의 비교

최연혁* · 이고은**

이 연구는 제의적 방법을 통해 스웨덴과 덴마크 총리의 첫 의회연설을 분석해 국가 간 차이 그리고 좌우정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정치문화의 본질과 정치적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제의적 연구는 레토릭 분석 방법 중 하나로 가치와 시제 그리고 통합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덴마크와 스웨덴의 총리연설은 매우 색다른 수사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 총리들의 연설은 더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으로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의적 레토릭 연구의 첫번째 요소인 청중통합의 메시지는 모든 화자에게 발견된다. 통합의 수단을 적용하는 지도자들의 접근방식도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제의적 레토릭 연구의 두번째 요소인 총리연설에서 나타난 가치적 특성의 비교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시도한 화자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이고, 가장 부정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 화자는 뢰벤 스웨덴 총리라 할 수 있다. 제의적 레토릭 연구의 세 번째 요소인 시간성분석에서는 네 명의 총리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정의, 현재의 당면한 과제, 그리고 미래국가의 모습을 미래시제에 담아 도달하고

*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자 하는 중착지로 서술함으로써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를 지향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좌파를 대표하는 뢰벤과 프레데릭센 연설은 평등과 연대,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적 구심점으로 삼고 있으며, 우파를 대표하는 크리스테르손과 라스무센의 연설은 자유, 책임, 선택, 기업과 시장을 중요한 핵심기제로 보고 청중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별로 한 정당씩 선택해 분석에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대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분석 하는데 그친 한계를 안고 있다. 앞으로 통시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리고 정당별 차이의 일반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의적 방법을 통한 총리의 의회연설이 보여주는 정치문화와 수사학적 요소의 이해에 기여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제의적 수사기법, 수사법, 레토릭, 의회연설, 스웨덴, 덴마크

1. 서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총리의 행위와 말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총리가 행하는 신년담화, 대 언론 현안 브리핑, 의회 연설, 정당 대표들과 벌이는 의회토론 등은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선거가 끝나고 구성된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행하는 의회연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사회적 문제의 본질, 국제정세의 흐름과 변화의 방향성, 선거에서 표출된 다양한 정치적 이견과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통합과 포용, 경제성장과 분배, 기후, 에너지, 지구온난화 등의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시각과 대책 등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덴마크는 매년 10월 첫번째 화요일에 왕과 왕실가족, 정부의 내각장관, 그리고 의회의원이 참가한 의회에서 총리가 국정연설을 진행해 왔다. 이 연설

은 헌법 38조에 따라 총리가 “왕국의 전반적인 입장과 정부가 의도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고 명시한 법적 근거에 따른다. 구두 발표 후에는 정부의 입법 제안에 대한 서면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절차이자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통에 따른 의식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 즉 국왕과 국민 앞에서 새로운 회기의 시작을 알리는 정치적 예식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통선거권 도입에 따라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1921년부터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행하는 연설이지만 1951년까지는 종종 국왕이 대신 낭독하기도 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국왕이 의회의 시작을 알리고 정부를 대신해 국정보고를 하지만, 덴마크는 1951년부터 국왕 대신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국정연설문을 낭독하고 왕을 포함한 왕실가족은 개원식에 참석해 경청하는 역할로 분리시켰다. 의회주의의 핵심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의 방향성을 알리고 국가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1951년부터 국왕 대신 총리가 낭독하는 예식은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Bulmer 2017).

덴마크와 같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921년부터 1974년까지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국왕연설(trontal)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74년 개정된 의회법(Riksdagsordning) 제3장 6절 “의회는 국회 개회를 위한 특별의식절차를 늦어도 국회개원 3일 전까지 개최해야 한다. 의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 원수는 국회 개원을 선언하고, 국왕이 사정이 있을 경우 의장은 국회 개회를 대신 선언한다.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시정연설(Regeringsförklaring)을 발표한다”고 명시한 법적근거에 따라 국왕은 개원선언의 역할로 축소되고 시정연설은 총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1974년 개혁 이후에도 정치적 전통의 일부인 내각회의의 주재권은 그대로 국왕이 갖고 있다. 즉 국왕이 선거 이후 구성된 정부 내각장관들을 알현하는 첫 내각회의(Konselj, Council of State)는 1809년 헌법 이후 진행해 온 것처럼 그대로 국왕의 집무실에서 거행되고 있다. 입헌군주제의 중요한 예식절차는 남겨둔 셈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 3장 6절 1항에 따라 진행되는 개원행사는 첫째 날 국회의장단 구성, 두번째 날 오후 2시 개원식의 절차로 진행된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국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가족이 함께 참

여하는 개원식에서 국정방향을 발표하는 행사는 입헌군주국 하에서 국가최고 원수인 국왕에게 예를 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행해지고 있는 총리의 개원연설은 미국의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SOTU)에 버금가는 정치행사로 1년동안 펼쳐 나갈 국정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행하는 첫 번째 국정연설은 어떤 현안을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물가상황과 경제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가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분배를 할지, 외교와 안보 및 국방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등 국내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위에서 정부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연두교서는 매년 1월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로 1913년 이후 미국 정치에 자리잡은 정치행사이자 하나의 전통적 민주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행해지는 총리연설은 새로운 정치계절이 각각 시작되는 9월과 10월 전체의원, 왕실가족과 내각장관, 그리고 내각이 참석하고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정치행사이자 중요한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 진행되는 개원행사는 총리의 첫 공식적 정치연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해지는 취임연설과 버금가는 비중을 가진다. 대통령의 취임연설이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의 총리가 행하는 개원연설은 대국민 설득과 소통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정치의 방향성과 사회발전의 인식, 구성원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 대한 호소, 참여와 포용, 준법정신 등의 시민정신을 다루고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계도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취임연설과 의회시정연설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소속감과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Campbell & Jamieson 2008). 예를 들어 전쟁, 기후위기, 물가상승,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로하고,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이끌어내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가기도 하며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적을 제시해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북유럽 두 국가의 좌파와 우파계열의 총리 의회연설의 특징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제의적(epideictic) 연구의 방법으로 비교분

석해 정치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제의적 연구는 미래에 정책에 초점을 둔 심의적(deliberative) 접근이나 과거 사실의 진위여부에 초점을 둔 법정적(judicial) 접근과는 달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가치적 언어와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덴마크와 스웨덴 두 국가 총리의 의회연설을 비교하기 때문에 두 국가 정치연설에서 내재해 있는 국가적 차이점과 유사성은 존재하는지, 좌우파 정부간 통합기제의 특성, 가치적 접근을 비교하기 때문에 좌우파 정부간의 동시대적 인식의 차이도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양국총리의 의회연설을 통해 나타나는 총리들의 시대적 통합인식과 민주주의적 가치구현, 그리고 정치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 미래에 대한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적 연구의 시도라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정치연설에 관한 제의적 분석 방법의 특징과 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수사학(2004)>을 기초로 그리스 시대의 레토릭을 분석한 바릴리와 페르넛과 같은 연구자들은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 연구기법을 심의적, 법정적, 그리고 제의적 방식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Barlilli 1989; Pernot 2015: 4) 수사학의 첫번째 접근방법으로 심의적(deliberative) 요소를 중심으로 연설을 연구한다. 이 접근방법은 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 비전, 그리고 국가의 숙명이나 국민의 의무와 책임 등과 같은 청중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방향성을 담고 있는지 관심을 둔다. 정치적 목적을 갖는 연설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신이 당선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사회를 개혁해 청중들이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심을 둔다.

정치연설에서 과거와 현재는 미래선택의 기반이 되며 극복해야 할 대상이거나 귀감으로 삼아야 할 선례로 사용되는지 연구자들은 확인한다. 이 접근 방식은 화자의 말에 서술된 사회와 국가의 모습,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

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약속과 비전을 정책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심의적 접근방법은 화자가 제시한 약속과 비전을 실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윤리성과 도덕심은 갖추고 있는지, 즉 화자의 에토스(ethos)적 요소들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둔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나 비전이 그럴 듯해도 도덕적 수준이 낮고, 윤리적 결함이 있는 화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Sheard 1996). 심의적 연구는 연설과 함께 정책토론을 중요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심의적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다자간 토론은 각각의 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토론, 정책전문가 토론, 학술적 토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두번째 수사학 기법은 재판과 관련된 (forensic), 사법적 혹은 법정적(judicial) 내용을 담는다. 주로 사실의 진위와 심각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접근방식이다. 변호인은 피고에게 죄가 없거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무죄나 낮은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변론을 통해 주장하며, 검사측은 피고가 한 행위가 사실이고, 얼마나 저지른 범죄가 무거운지를 가려 죄를 지은 만큼 적정한 형량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장을 펼친다.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진술은 매번 하나의 연설문 형식을 띤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누가 더 설득적인지, 다시 말해 누가 더 논리적으로 변론했으며, 합당한 근거를 제시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내린다.

이 장르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체에 초점을 둔다. 또한 피고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정상참작에만 도움이 될 뿐 행위의 진위에 대한 판단에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행위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로고스(Logos), 즉 논리적 완결성을 가장 강조하는 접근방식이다(Barlilli 1989; Sheard 1996).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사실과 거짓 혹은 진실과 허위를 둘러싼 토론의 증거논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수사분석에 포렌식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셋째, 마지막 수사학 기법으로 제의적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는 의식이나 행사 때 사용되는 말과 언어에 관심을 두

기 때문에 애도, 안부, 기원, 희망, 용기, 응원 등의 의례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느끼는 소속감,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 종교 및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광범위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일체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의적(epideictic)이라는 뜻은 ‘내 보이기 적합하다(epideiktikos)’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으며, 수사학의 한 장르로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선함, 존경, 사랑, 관심, 화합, 포용, 관용의 수사를 통해 그 반대적 개념인 부정적 감성을 억제하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안도감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예식장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하객들이 축하사나 장례식장에서 망자를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추도사는 감성적 언어를 매개로 화자와 청자간 소통하는 매개체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 1986년 발사장을 떠나 우주로 향하던 쉔린저호가 폭발해 승무원 일곱 명 모두가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행한 애도사를 연구할 때 슬픔의 공유, 희생자의 고귀한 생명, 정신, 희생에 대한 음미와 감사, 희생자가족과 국민의 위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더 높은 도전으로 향하는 희생자 정신의 구현 등이 표현되고 있는지, 위로와 통합의 내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Sheard 1996; Pernot 2015:72).

레토릭 연구의 세가지 접근법을 정리해 보면, 심의적 접근은 미래에 초점을 둔 정책, 비전, 공약 등 정치적 정견이나 발표 등 기록된 언어와 수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과거행위의 결과에 대한 진위나 책임의 소재를 탐구하고자 할 때 포렌식 방법을 사용하며, 제의적 접근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장소, 역사, 문화, 사고방식, 화합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청중과 소통하는지, 어떤 형식의 언어와 표현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적 방법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사학적 기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의적 방법은 특징은 무엇일까? 지도자의 연설, 특히 미국대통령 취임사

를 연구한 캠벨과 제이미슨(Campbell & Jamieson 1990), 제의적 방법의 특징과 유의성에 대해 연구한 로버츠(Roberts 2004), 그리스시대 제의적 수사기법의 특징을 연구한 빌(Beale 1978)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의적 방법을 통해 국민여론을 하나로 다시 화합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언어를 통해 화자가 그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의 연설은 현장에 있는 청중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포용하는 공동체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제의적 연구에서는 사회 조화와 타협, 공동번영과 화합 등의 통합적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 관심을 둔다(Campbell & Jamieson 1990).

둘째, 제의적 접근법은 가치를 매우 중요한 소통수단을 사용한다. 긍정적 가치들, 예를 들어 평화, 자유, 정의, 평등, 포용, 관용 등과 같은 요소는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증진시켜 나가야 목표인 반면 분열, 양극화, 파괴, 폭력, 소외 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는 극복하고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 발전과 변화를 피하고자 한다(Beale 1978; Roberts 2004). 지도자들은 긍정적 요소들을 매개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부정적 요소는 회피해 파괴적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찾으며 노력하기 때문에 말의 분석을 통해 지도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Shard 1996: 766).

셋째, 제의적 수사법은 시간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즉 현재라는 시제를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미래로 투영되는 거울로 본다. 또한 현재의 행복과 불행은 과거역사나 집단 혹은 개인 행위의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현재의 행복을 지속시키거나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해결해야 할지, 어떤 장애와 기회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정리해 보면 제의적 수사법은 화자의 단어(words), 대상(objects), 관념(ideas)을 핵심요소로 의미(meaning)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미론(semantics)과 단어들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통사론(syntax)을 사용해 화자의 생각구조를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의적 접근은 화자의 정체성과 권위를 파악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라 할 수 있다 (Roberts 2004: 274).

수사학 기법을 이용해 스웨덴의 정치사를 이해하고자 시도한 요한네손의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의 말에 내재해 있는 역사성, 가치구현, 목적지향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사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의적 방법이 왜 중요한지를 지적하고 있다(Johannesson 2005). 덴마크 정치지도자들의 레토릭을 연구한 쉘드센 등에 따르면 덴마크의 역사와 정치문화에 내재해 있는 가치구현을 위한 단어의 사용과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해 정치인들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설문과 정치광고, 선거운동 포스터 등의 연구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jeldsen, et al. 2021). 정당대표들 특히 총리의 연설에 대한 제의적 연구는 한 나라의 정치구조와 문화 그리고 가치의 중심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연구의 틀이라 할 수 있다.

3. 방법 및 연구문제

그리스 시대부터 언어와 수사법은 자기성찰과 토론의 주제로 자리 잡았다. 언어의 문화적 위상과 창조력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던 그리스 소피스트 시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를 거쳐 수사학은 청중을 설득하는 수단이나 설득하는 기술로 간주하며 체계화된 학문체계로 발전되었다.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은 로마시대를 거치며 현대 수사학 이론의 기초로 자리 잡은 이 후 유럽정치, 특히 영국의 귀족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귀족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수사학, 문법, 논리학과 함께 라틴어를 배우며 자랐고, 가정교육의 마지막 관문으로 대석학과 함께 떠나는 그랜드 투어를 통해 현지 귀족들과 토론과 사교를 통해 건문을 넓혀 왔다. 프란시스 베이컨,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아담스미스 등 영국과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와 지식인들은 그랜드투어의 교사이자 인솔자로 현지 지식인 사교모임의 핵심 인물 등과 만나며 스스로 학문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귀족자녀들의 교양, 학문, 토론능력 향상에도 지대한 역할을 미친 사람들이다(Brodsky-Porges 1981; Cohen 1992; Peck 1996; Ueno 2023; Zaretsky 2014). 수사학은 1823년에 설립된 옥스포드 학생 토론회인 Oxford Union과 1815년 설립된 캠브리지 학생

토론회인 Cambridge Union의 필수과정으로 자리잡으며 발전되어 왔다. 영국의 토론과 수사학적 전통을 미국의 상류사회에 그대로 유지되어 미국 상류층 자녀들이 영국과 유럽여행 후 돌아와 하버드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대학, 윌리엄 메리 대학 등의 엘리트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의 토론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오랜 전통은 미국이 현재 세계적 토론 수준과 문화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박성희 2009).

덴마크와 스웨덴 지도자들의 수사학 구사능력도 영국의 예에서 보듯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와 그랜드 투어를 통해 키울 수 있었으며 왕족 및 귀족자녀들이 유럽의 명문가 자녀들과 교체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정치문화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랜드 투어가 스칸디나비아 상류층 자녀들의 중요한 교육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참여하는 귀족자녀들과 전문가 직종, 노동운동가 들은 정치적 소양과 소통방법을 가정, 교회, 학교, 노조, 그리고 정당 등 다양한 학습통로를 통해 레토릭의 기본소양들을 익힐 수 있었다. 귀족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문법, 말하기, 쓰기 등 레토릭의 기초를 가르치며 정치인의 말과 토론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왔다(Kjeldsen, et al 2021). 스칸디나비아 정치인들의 레토릭이 강한 노동운동과 의원내각제, 다당제의 영향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영미와 다르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Hansen & Kock 2003). 영국과 미국의 경우 양당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토론에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 의회토론이 설득과 반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 정당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주된 특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레토릭 분석방법의 3가지 중 하나인 제의적 요소를 사용해 의회연설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의회에서 행한 총리연설의 제의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2개씩 총 4개의 최근 의회연설문을 사용했다. 덴마크의 경우 2015년 보수연립 정부인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2019년 새롭게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이끄는 좌파정권의 첫 의회연설을 선택해 분석했다. 스웨덴은 2014년 구성된 좌파정권 총리였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2022년 우파정권 총리였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의 의회 연설을 골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덴마크 총리 홈페이지와 스웨덴 정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영어번역본을 사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일정부분 왜곡과 상실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번역한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각 국가마다 좌파와 우파정권의 연설을 하나씩 선택해 국가별 차이와 좌우정부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텍스트 빈도(frequency)를 통한 의미론(semantics) 분석과, 통사론(syntax) 분석 등은 NVivo 16 버전을 이용하여 진행했고, 가치분석과 시제 분석 등은 파이선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추출한 후 저자들의 재분석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냈다. NVivo 16의 ‘Word frequency query’, 그리고 ‘Run text search query’ 기능을 이용해 단어의 빈도를 통한 의미론(syntax)적 분석과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사론 (syntax)적 분석을 수행했다. 파이선의 TextBlob 라이브러리의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해 긍정과 부정의 단어를 추출한 후 연설의 가치방향성 해석을 수행했다.

총선 승리 후 처음 행하는 연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선거 후 처음 행하는 공식연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취임사에 버금가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연설에서 통치의 방향성, 위기의 인식과 개혁의 필요성, 통합의 중요성, 동기와 자극 등을 통한 실행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연구할 수 있다.

연구의 중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덴마크와 스웨덴의 총리연설은 어떤 수사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덴마크와 스웨덴의 총리연설은 청중통합의 요소를 어떻게 담아 내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두 국가의 총리연설에서 나타나는 가치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두 국가의 총리연설에서 나타나는 현재적 연속성에 대한 인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5: 덴마크와 스웨덴의 진보정부와 보수계열 정부의 의회연설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4. 연설분석

4.1 연설의 수사학적 특징

각국 총리연설문의 내용과 형식은 정치문화와 역사적 전통의 차이에 따라 각각 독특하게 나타난다. 표 1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네 명의 연설 중 스테판 뢰벤 총리의 연설은 매우 간결하고 일정한 틀이 반복되는 단순한 형태의 전달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당위적 조동사(must) 혹은 ... 할 시간 등의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목적지향형 연설을 유지하고 있다. 당위와 의무 조동사(must) 나 should를 각각 76회와 7회를 사용하면서 현실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구성하며, 미래시제(will)을 149회를 반복하면서 호소와 설득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반복적 표현을 사용해 주장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전달의 효율을 높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으로 구성되는 3단설득논법(sylogism)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 연설을 구성하고 있다. 대조적 기법 (antithetic)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예, I do not underestimate..., I do not overestimate...등과 같이 반대의 대조적 단어를 통해 문장을 구성함), 반복법 (nothing...nothing...nothing), 등어로 강조하는 문체를 띠며, 수사학의 아나포라 기법(즉 문장이나 구 앞부분의 반복기법, 예를 들어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등)을 사용해 특수반복법도 구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스테판 뢰벤과 같이 당위조동사(must)를 37회 사용하면서 변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 후 의지조동사(will)를 229회 사용하면서 미래의 실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덴마크 총리들의 연설은 스웨덴 총리들보다 훨씬 더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는 매우 짧은 문장을 사용해 화자의 언어에 집중하기 매우 수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레토릭기법, 특히 은유법(metaphor), 환유법(metonymy), 대화체(dialogismus), 의성어(onomatophea)를 사용한 친밀한 표현기법 등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사법의 하나인 말미단어반복법(anadiplosis)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극적 연설의 묘미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스무센 총리가 사용한 이 기법의 한 예로 “without jobs, no prosperity; without prosperity, no welfare; without welfare, no social cohesion”는 논리의 귀결성이 뛰어나며 강한 논리적 설득력을 담고 있다. 라스무센 총리도 스웨덴 총리와 유사하게 국가가 당면한 다양한 위기와 문제를 당위조동사(must 47회), 의지조동사(will 55회) 사용해 문제의 해결의지를 보여 주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정치가 문제의 인식과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체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덴마크 시민당 출신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은 가장 풍부한 레토릭 기법을 구사하고 있어 연설문을 읽으며 시와 산문 등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일상을 스케치하듯 표현하기 위해 시인의 시를 인용을 통한 풍유법(allegory), 다른 의미를 담은 은유법(metaphor)과 환유법(metonymy)을 동시에 사용한 기법(예를 들어 “We must carry forward that torch”), 대화형 화법인 문답대화법(hypophora)인 “But, you know what?”, 반복법(예, “We are three countries, three peoples, three cultures”), 질문형 소통방식인 질문체(interrogation) 등을 다양하게 사용해 매우 문체가 쉽게 이해가 되면서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매 문장이 레토릭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의 머릿속에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성향이 강하다. 프레데릭센의 연설을 보면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종종 웃음과 박수 등으로 호응할 정도로 소통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두 국가 총리의 연설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호칭법이다. 스웨덴 총리들의 경우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의장님(Mr. Speaker)”의 호칭법(apostrophe)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기법은 청중의 관심을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이슈를 담은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사용되기 때문에 청중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때 자주 등장하는 소통방식이다. 이 기법은 스웨덴의 뢰벤 그리고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덴마크 총리의 연설은 자기독백이나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의 읽어주는 느낌을 띤다. 쌍방향 대화라는 형식보다는 수필을 읽듯 자신이

느끼는 국가의 강점과 자부심, 덴마크 문화의 정체성, 현안문제의 진단, 풍부한 수사법을 동원한 연설은 듣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해학, 사색의 시간을 제공해 준다. 가장 화려한 수사법을 동원해 연설을 구사하는 화자는 단연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다. 일상을 머리에 그려주는 듯한 나레이션인 아나게이아 기법(energeia), 시인의 표현, 격언이나 우화 등을 인용하는 풍유법(allegory), 대상을 비교하는 은유법(metaphor)과 환유법(metonymy, 문답대화법(hypophora), 반복법(repetition)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동원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문학을 읽은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좋은 문장과 표현법이 많다.

<표 1> 스웨덴과 덴마크 총리연설의 수사학적 분석

	스테판 뢰벤	울프 크리스테르손	라스 뢰케 라스무센	메테 프레데릭센
시기	2014. 1. 30	2022. 1. 18	2015. 6. 28	2019. 6. 27
정당	스웨덴 사민당	스웨덴 보수당	덴마크 보수당	덴마크 사민당
연설길이 (자수)	4713	6839	5295	5570
연설의 몇 가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이하고 건조한 수사법 • 논리적 설득법 중심 (문제의 원인, 해법제시) •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정부부각 • 반복기법(repetition) 반복사용 (“we are ready; we are ready to tackle these problems”) • 당위와 의무 조동사 (must 76회, should 7회)와 미래시제 (will 149회)를 동원해 직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거를 발전시켜 주장하는 3단논법(syllogism) 주로 사용 • 대조적 기법 (antithetic)을 자주 사용 (I do not underestimate..., I do not overestimate...) • 반복기법(repetition)의 집중사용 (nothing...nothing... nothing) • 수사학의 아나포라 기법(anaphora) (앞부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문위주의 간결문 • 다양한 레토릭기법 사용 (은유법 metaphor, 환유법 metonymy • 대화체 (dialogismus)의 효과적 사용 • 의성어 (onomatophea)를 사용한 친밀한 표현기법 • 말미단어반복법 (anadiplosis)의 효과적 사용 (without jobs, without prospe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레토릭 • 일상의 스케치, 시인의 인용을 통한 풍유법 (allegory) 사용 • 은유법(metaphor)과 환유법 (metonymy)의 빈번한 사용 - “This inequality in health, I will not accept. We do not want an “A” team and a “B” team.”; “We must carry forward that torch” • 반복법(repetition)의 다수 사용 - “We are three countries,

	<p>호소와 설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시간(time to... 총17회) 표현을 통해 실천을 강조 	<p>반복기법 -</p> <p>“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도 자주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위(must 37회) - 의지(will 229회) 조동사를 통해 변화를 위한 미래실천 의지표현 · 문제의 원인 제시, 극복의 당위성, 실천의 의지 등 논리적 문체를 주로 사용함 	<p>no welfare; without welfare, no social cohe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위와 의무 조동사(must 47회), 의지조동사(will 55회) 사용하면서 논리전개 	<p>three peoples, three cultures”; “The climate battle can become a common, Danish batt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형 소통 (interrogation) - Do you think that your children will have a better future than the one you had?; “How can we create more private jobs? How can our young people get a practical training placement? And how can the companies get the employees they need?” · 자문자답(hypophora)형 소통 - I wish I could answer YES. But NO. I cannot; Do you recognize the picture of Denmark I’ve just painted? I believe so.
<p>소통의 도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 Speaker 13회 언급 - 새로운 문단전개를 위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 Speaker 12회 언급 	<p>호칭법 전혀 사용하지 않음</p>	<p>호칭법 전혀 사용하지 않음</p>

4.2 통합 메시지와 형식

선거 이후 처음 구성되는 정부는 의회연설에서 계층간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한다. 연설은 의미를 담는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의미적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지, 그 단어들은 어떻게 문장을 형성하며 정보를 담고 있는지 분석할 때 의미론(Semantics)론과 통사론(Syntax)이 사용된다. 의미론은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며, 통사론은 의미와 의미가 모여 만들어지는 문장 속에 담긴 정보를 파악하는 학문이다(Åqvist 1965; Karttunen 1977; Gunter et al. 2007).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단어와 문장들을 의미론과 통사론을 통해 파악해 보면서 네 명의 연설문을 분석해 본다.

부록 1에 추출된 연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 뢰벤 연설에서 발견되는 통합의 기제는 공동체의 상징적 단어인 ‘스웨덴(Sweden)’, ‘스웨덴어/스웨덴의(Swedish)’을 사용해 정체성과 동질감을 강조한다. 화자 중심의 ‘나’가 아닌 공동체의 호칭인 ‘우리’라는 단어로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1인칭 ‘나’가 사용된 문장은 단 한 번 발견될 정도로 동질감과 일체성을 강조하는 연설문의 성격을 띤다.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정부’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즉 ‘우리는 ... 하겠습니다’라는 표현 대신 ‘정부는 ...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정부’라는 뜻은 공적 구속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스웨덴의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연설에서 더 명료하게 발견된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스웨덴’, ‘스웨덴의’, ‘우리’라는 단어를 각각 81회, 50회, 35회 언급하면서 동질성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단지 뢰벤 총리보다는 ‘나’의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해 지도자 개인의 약속과 신뢰도 강조하는 리더쉽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테르손은 ‘정부’, ‘책임성’을 각각 67회와 23회를 언급하면서 실행의 주체로서 정부가 갖는 책임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 총리들의 통합적 기제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라스무센

그리고 프레데릭센 총리는 스웨덴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덴마크의’, ‘우리’, 그리고 ‘정부’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정체성의 확인과 동질감 확보를 위한 화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덴마크 총리들은 1인칭 복수주어인 ‘우리’보다는 1인칭 단수주어인 ‘나’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41회(라스무센), 76회(프레데릭센)를 사용해 청중과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즉 스웨덴 총리들의 화법은 주로 공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청중과 소통하지만 덴마크 총리들은 더욱 친밀감이 느끼게 하는 사적인 표현이 동원되어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해 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4명의 총리에게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는 유사한 의미론(semantics)적 구조를 보여준다. 정부 구성 이후 이루어지는 첫 연설의 목적은 정부가 집권기간동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장애를 극복해 선거에서 약속한 국가의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설득적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후 장애를 통합과 화합의 접근방법을 제시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네 명의 연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주로 차별의 존재, 실업률, 학생들의 학교성적 저하, 복지제도의 실패, 성평등차이,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젊은 세대들의 성정체성 차별(외젠), 스웨덴 우파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유혈폭력과 보복사살, 경제침체와 소외, 에너지위기, 안보위기와 집단안보의 부재(크리스테르손), 덴마크의 보수당 연설의 경우 평행사회가 만든 자유와 평등의 약화, 일자리 부재가 만든 이완된 사회 결합력, 유럽 전체 특히 덴마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망명자 대거 유입, 통합정책의 실패, 지방의 공동화와 저개발, 시장의 약화(라스무센), 덴마크 사민당은 책임의 회피, 다양한 사회붕괴의 요소들, 난민문제, 자유무역의 붕괴, 여성의 신체자유선택권의 약화(프레데릭센) 등을 제시한다.

연설구성에 있어서 국가 간의 차이 뿐 아니라 좌우파 정부간의 차이도 발견된다. 스웨덴 좌파정권인 리벤의 경우 차별의 상존과 실업률, 성별 격차와 성정체성의 차별 등 차별의 극복이 가장 큰 제약이자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규정짓는 반면 우파정권을 이끄는 크리스테르손은 경제, 안보, 사회안정, 에너지 등 경제, 안보, 외교, 미래에너지 등의 약화가 가장 큰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어 좌우 정권 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덴마크의 경우는 좌우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레토릭을 이용해 연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보다는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담고 있다. 우파인 라스무센의 경우 결속(cohesion)을 통해 에너지 문제, 난민문제, 지역격차, 일자리 부재 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고, 좌파인 프레데릭센은 신뢰(trust), 책임과 희망(responsibility and hope)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 총리들의 설득방식이 스웨덴 총리들의 것과 확연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4개의 연설 모두 통합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의 행동, 공동의 책임, 스웨덴의 현대화, 아동의 자유증진을 위한 약속, 사람과 환경을 위한 투자, 스웨덴의 결속, 스웨덴의 세계적 롤모델로 발전시킴 등은 뢰벤 총리의 스웨덴 사회를 통합과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다. 크리스테르손은 스웨덴 복지제도인 주춧돌(welfare as cornerstone)의 강화(Several of the cornerstones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1991년 재정위기, 2019-2022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한 사례처럼 이번 사회위기, 안보위기 등을 단결과 협조로 해결, 문제해결을 위한 순위 정하기 - 예를 들어, 다양성, 자유, 독립적 언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보건의 질 향상, 여성질병과 건강 등 언뜻 보면 좌파의 통합방향성의 일환으로 느껴질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라스무센은 사회의 단합과 결속 (경제적, 지리적, 가치중심적, 그리고 사회적)을 강화해야만 사회의 통합과 조화에 기반을 둔 국가의 전통지속과 세계 최고의 국가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며, 다양한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자유, 번영, 조화의 사회, 난민문제의 협조, 결속의 강화를 위한 책임성, 난민으로 생긴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 평화와 진보, 교육과 일을 통한 성공 등을 제시하며 국가의 결속을 독려하는 연설의 성격을 담고 있다. 프레데릭센은 신뢰의 사회를 통한 조화롭고 통합된 사회를 그리며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도 세금을 회피하

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의료비용을 부담하듯 자신도 똑 같이 부담하겠다는 믿음, 곧 연대의식이 필요하며, 안정성, 창의성, 일자리, 진보는 단절된 사회가 아닌 연결된 사회에서 가능하며, 정의를 위한 투쟁, 덴마크를 만들어낸 신뢰를 통해 통합과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 복지, 친환경적 덴마크를 향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네 명의 총리 중 강한 레토릭을 담는 언어로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연설을 구사하고 있는 프레데릭센은 신뢰를 중심으로 정의, 복지, 친환경을 연대를 통해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나머지 세 총리의 연설에서도 통합과 조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지만 호소력에 있어서는 프레데릭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4.3 가치표현의 구성

제의적 연구는 가치를 중시한다. 말의 구성은 선호(좋아함, 싫어함), 순위(더 좋음, 덜 좋음), 선악(좋고 나쁨), 감정(슬픔,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삶의 가치(행복, 사랑, 헌신, 포용, 관용, 이해, 단합, 연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이야기는 선택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Balot 2013; Lauer 2015). 다양한 가치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설 내용은 긍부정의 메시지가 뒤섞여 청중에게 전달된다. 긍정어는 사회를 인식하는 단어가 긍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로 구성되며, 부정어는 반대로 부정적 언어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를 위해서 파이선의 TextBlob 라이브러리의 감성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연설문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진행한 후 추출된 단어를 다시 연설문에서 찾아 사용된 빈도수를 비교해 보았다. 파이선의 TextBlob 라이브러리의 감성분석 알고리즘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를 추출해 긍정과 부정의 차트로 보여주지만, 정량적으로 추출된 수치대신 추출된 단어의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더 효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부록 2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가치의 두 방향성 즉, 긍정과 부정의 감성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부정적 메시지를 제시한 스웨덴의 뢰벤 총리는 총제적 난관(“The state of affairs in Sweden is serious.”)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부정적 요소들은 실업, 학교성적 저하, 복지국가의 위상저하, 성별 임금 격차 증가와 불평등증가, 16개 중 14개의 파리협약 조약 미이행, EU 생명 다양성 요구 사항 미충족 위기, 예산적자, 중동 전쟁과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안보위협, 세계안전의 위협, 인종차별, 자연재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뢰벤은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당위조동사(must)의 도움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뢰벤이 사용한 당위조동사는 비교대상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76회를 사용하고 있고, 의지조동사(will)도 149회 사용되어 힘든 난관을 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표1 참조).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선(improve 13회), 발전(develop 17회), 진보(progress 1회), 기회(opportunity 4회), 더 낫은(better 4회), 투자(investment 9회), 희망(hope 2회), 해결(tackle/solve 2회) 등의 단어들로 구성하는 통사론적 분석을 보면 스웨덴의 긍정적 미래 지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신뢰(1회), 조화, 통합(3회), 결속(3회), 연대(3회), 정의(3회) 등의 단어들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크리스테르손의 연설은 뢰벤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당위조동사(37회), 의지조동사(229회) 등을 사용해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크리스테르손은 개선(8회), 발전(15회), 기회(3회), 더 낫은 (2회), 투자(15회), 희망(2회), 해결(2회) 등의 단어들로 구성하는 통사론적 분석을 보면 크리스테르손의 긍정적 미래 지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투자(14회)를 중심으로 통합(10회), 신뢰(2회), 믿음(2회), 정의(2회), 사랑(2회), 연대(1회) 등의 단어들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라스무센은 개선(4회), 발전(8회), 기회(8회), 더 낫은 (10회), 투자(3회), 희망(3회), 통합(8회) 등의 단어들로 구성하는 통사론적 분석을 보면 라스무센의 긍정적 미래 지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라스무센이 사용하는 사회를 지탱하는 긍정어로 결속(14회)을 중심으로 신뢰(2회), 통합(7회), 정의(2회), 사랑(1회) 등을 사용하고 있다. 프레데릭센은 개선(5회), 발전(3회), 기회(6회), 더 낫은 (11회), 투자(2회), 희망(4회) 등의 단어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긍정적 미래 지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신뢰(37회)를 중심으로 통합

(4회), 결속(1회), 연대(3회), 믿음(3회), 정의(3회), 포용(1회), 사랑(2회) 등의 긍정어를 사용해 연설의 긍정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인 ‘신뢰’는 무려 37회가 언급되어 있어 신뢰연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표2로 정리해 보면 긍정어와 부정어의 비교에서 프레데릭센은 88회의 긍정어를 사용한 반면, 32회의 부정어를 사용해 +56의 강도로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라스무센은 65회의 긍정어, 31회의 부정어를 사용해 프레데릭센과 같이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34의 긍정메시지가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뢰벤은 긍정어 56회, 부정어 41회로 그 강도의 차이는 +15에 그쳐 약한 긍정연설을 구성하고 있고, 크리스테르손의 경우 77회의 긍정어를 사용해 매우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함과 동시에 부정어도 66회 사용해 그 차이는 +11에 그쳐 매우 약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다.

연설에서 사용하는 긍정어와 부정어의 사용빈도를 기초로 진행한 감성비교는 포함시키는 단어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네 명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를 직접 비교해 보았기 때문에 연설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표 2> 연설의 긍정어-부정어 감성분석

	긍정어	부정어
뢰벤 (+15으로 긍정어 우세)	개선(13회) 발전(17회) 진보(1회) 기회(4회) 더 나은 (4회) 투자(9회) 희망(2회) 해결(2회) 신뢰(1회) 통합(6회) 결속(3) 연대(3회)	도전(6회) 비관론(0회) 실패(4회) 위기(4회) 불평등(2회) 전쟁(2회) 갈등(4회) 분리(1회) 전투(0회) 물가상승(1회) 적자(2회) 불의(1회)

	긍정어	부정어
	정의(3회) 포용(0회) 사랑(0회) 책임(1회) 56회 긍정어 사용	고립(1회) 실업(5회) 인종주의(5회) 편견(1회) 범죄, 마약, 살인, 인신매매 (8회) 파괴(0회) 차별(0회) 41회 부정어 사용
크리스테르손 (+11으로 긍정어 우세)	개선(8회) 발전(15회) 진보(0회) 기회(3회) 더 나은 (2회) 투자(15회) 희망(2회) 해결(3회) 신뢰/믿음(4회) 통합(10회) 결속(4회) 연대(6회) 정의(2회) 포용(0회) 사랑(2회) 책임(1회) 77회 긍정어 사용	도전 (3회) 비판론(0회) 실패(3회) 위기(7회) 불평등(0회) 전쟁(6회) 갈등(2회) 분리(1회) 전투(5회) 물가상승(4회) 적자(4회) 불의(0회) 고립(1회) 실업(5회) 인종주의(0회) 편견(0회) 범죄, 마약, 살인, 인신매매, (23회) 파괴(0회) 차별(0회) 66회 부정어 사용
라스무센 (+34로 긍정어 우세)	개선(4회) 발전(8회) 진보(0회) 기회(8회) 더 나은 (10회) 투자(3회)	도전 (3회) 비판론(0회) 실패(1회) 위기(1회) 불평등(1회) 전쟁(2회)

	긍정어	부정어
	희망(3회) 신뢰/믿음(2회) 해결(1회) 통합(8회) 결속(14회) 연대(0회) 정의(2회) 포용(0회) 사랑(1회) 책임(1회)	갈등(3회) 분리(0회) 전투(5회) 물가상승(0회) 적자(4회) 불의(0회) 고립(1회) 실업(5회) 인종주의(0회) 편견(0회) 범죄, 마약, 살인, 인신매매 등 (5회) 파괴(0회) 차별(0회)
	65회 긍정어 사용	31회 부정어 사용
프레데릭센 (+56로 긍정어 우세)	개선(5회) 발전(3회) 진보(0회) 기회(6회) 더 나은 (11회) 투자(2회) 희망(4회) 해결(6회) 신뢰/믿음(37회) 통합(4회) 결속(1회) 연대(3회) 정의(3회) 포용(1회) 사랑(2회) 책임(0회)	도전 (3회) 비관론(0회) 실패(3회) 위기(6회) 불평등(2회) 전쟁(6회) 갈등(0회) 분리(0회) 전투(2회) 물가상승(1회) 적자(0회) 불의(0회) 고립(1회) 실업(1회) 인종주의(0회) 편견(0회) 범죄, 마약, 살인, 인신매매 등 (7회) 파괴(1회) 차별(0회)
	88회 긍정어 사용	32회 부정어 사용

4.4 현재의 연결성

정치연설의 목적 중 하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지향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설득적으로 보여 주는데 있다(Bread, 2000, p. 18; Chilton 2004; Dylgjerii 2017; Searle 1969).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는 과거의 선택과 관련이 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문제와 에너지원의 위기는 얼핏 보면 그 주 원인은 전쟁과 자원고갈 등 외생적 요인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 정권들의 에너지 정책,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전력망의 노후화 방치,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투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파악된 원인들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행위를 이끌어 가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한다 (Van Dilk and Teun 1997).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연설에서 지지층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 경제번영, 삶의 질과 같은 긍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도 과거 이론 결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설문에서 어떻게 과거의 업적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지금 구가하고 있는 삶의 질, 복지, 안정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시민당은 복지국가를 평가할 때 자신들의 업적이라는 평가를 강조할 것이고, 보수당은 복지국가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수물로 생긴 문제점 즉, 국가의존성과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연설에서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현실인식과 관계없이 처방은 체계적 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인식은 연설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Rollins 2005). 현재의 당면한 과제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당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제의적 연구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박성희 2009).

부록 3에 정리된 자료는 네 총리의 시간성을 파악하게 해 준다. 네 명의 총리는 시간성을 연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본질과 스웨덴과 덴마크가 이룩한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모델을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약화되고 퇴색된 부분들을 현실적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 희망하고 꿈꾸는 국가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할지를 연설문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다. 시간의 세 단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평가와 시각을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뢰벤 연설의 시간성

과거에 대한 평가

- 중대시기 결속과 협력의 전통을 구축한 나라
-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버린 실업률
- 수출과 안정적 경제력의 힘을 갖춘 나라
- 최근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실업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권
- 격차를 없애고 자녀들에게 한 자유에 대한 약속을 실천해 왔던 국가
- 최근 인종차별에 대항한 국민적 시위
- 경제성장에도 약화된 공공재정
- 기후정책의 실패와 구실 찾기
- 어려운 시기 때마다 결속과 협력을 해 왔던 정치계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 우리는 다시 도전에 나서서 국가를 건설할 것
- 이제 우리는 다시 도전에 나서서 희망과 기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할 것
- 일은 공동체와 소속감을 의미함. 일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형성하는 힘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웨덴을 현대화하기 위한 미래 개혁임
- 우리가 사람과 환경, 지식과 경쟁력, 현재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 함께 투자하는 국가임
- 필요와 가능성을 알고 있음. 이러한 열망으로 스웨덴을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웨덴을 현대화하기 위한 미래 개혁임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임
- 스웨덴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개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배출량을 줄여야 함. 이러한 이유로 기후 정책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것임

미래에 대한 기대

- 스웨덴은 우리의 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롤모델로 남을 것
-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을 촉진하는 나라
- ... 희망과 기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라
- ...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의 건설
-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국가
- 전문 인력, 최신 지식, 최첨단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 지식과 경쟁력, 현재의 안보, 미래에 대한 희망
-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고 고무하는 힘이 되어야 함
- 우리가 격차를 메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 자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나라

크리스테르손 연설의 시간성

과거에 대한 평가

- 스웨덴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힘든 시기를 겪었고 시험을 견뎌 냈음
- 스웨덴은 이전에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음
- 예를 들어 1990년대의 위기 때 문제를 극복했음
- 스웨덴은 1970년대의 석유 위기를 해결했음. 성장과 배출량 증가 간의 연관성을 끊었고, 세계 최초의 거의 완전히 화석 연료가 없는 산업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음
- 우리는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음
- 모든 것에 대해 같은 신념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우크라이나의 친구들이 현재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스웨덴 민주주의를 존중함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 정부는 환상적인 국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이제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스웨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음. 하지만 스웨덴의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음

- 저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시 서로를 지지할 의향이 있기를 바람
-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하는 정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고 하나로 모으고 싶어하는 정부
- 총리로서 저는 스웨덴을 분열된 국가에서 통합된 국가로 이끌고 싶음. 이 의회에 있는 우리는 성숙한 담론을 추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람
- 우리가 사랑하는 스웨덴은 자유와 책임 사이의 역동성으로 구별됨
-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자가 더 강하지 않기 때문임

미래에 대한 기대

- 모든 사람에게 법과 성평등이 적용되는 나라
- 모든 자녀가 부모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항상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람 있는 나라
- 기후에 스마트한 풍력, 수력, 핵 에너지가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는 나라
- 폭동과 충격이 아닌 녹색 혁신,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새로운 일자리가 스웨덴을 국제적인 헤드라인에 올려놓은 나라
- 자유와 책임은 스웨덴의 중심축,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됨

라스무센 연설의 시간성

과거에 대한 평가

-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는 지구상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와 번영, 조화.
- 우리는 평등을 기반으로 사회를 건설했음.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 좋은 전통임
- 덴마크에서는 직원, 고용주, 정치인이 필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 3자 협정을 체결하는 전통이 있음
- 지금까지 이민자 통합정책은 실패했음

- 그리고 비서구국가에서 온 모든 많은 이민자가 10년, 20년 또는 30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일하지 않고 있음. 매우 우려됨
- 함께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혁했음. 이 개혁은 숙련 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임
- 덴마크는 기회와 나라. 다음 세대도 같아야
- 폴케스콜레(초등학교 및 중학교) 개혁이 필요. 모든 어린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임
- 의회의 광범위한 다수에 따라 우리는 훌륭한 폴케스콜레(초등학교 및 중학교) 개혁을 도입했음. 모든 어린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임
- 덴마크는 피난민을 도울 책임이 있음. 동시에 우리나라가 단절되도록 할 책임도 있음
- 우리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욱 개선해야 함
- 우리는 그것을 되살릴 것임

미래에 대한 기대

- 정부는 내년에 학업 수준을 높이는 개혁을 통해 고등학교를 강화하기를 원함
-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서로에 대한 신뢰. 조화로운 사회.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 덴마크.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함
- 지리적 응집력에 기반한 덴마크
- 개인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곳
- 어느 지역에 살든, 얼마나 부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강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국가
- 성공의 길은 교육과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단지 망명과 가족 재결합을 통해서가 아님
- 통합을 시킬 수만큼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
- 사회에 기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덴마크

- 기업들이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

프레데릭센 연설의 시간성

과거에 대한 평가

- 제가 기억하는 한, 덴마크 정치는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계속해서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음
- 젊은 세대가 우리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 사회민주당은 노인 시민의 매일 샤워할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정책의 일부로 삼았음.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
- 2020년 5월 5일은 덴마크가 해방된 지 75주년이 됨. 독일과 맺은 좋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한 기반인 동일한 신뢰가 필요할 때 임
- 우리는 덴마크를 반대, 불평등 또는 탐욕 위에 건설하지 않았음. 우리는 그 반대의 덴마크를 건설했음. 돌봄. 신뢰. 공동체. 연대를 가진 나라로
- 그것은 비전이 있는 기업과 유능한 직원의 결과임.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덴마크의 강점에 베풀어 줄 용기가 있었던 적극적인 정치적 결정의 결과이기도 함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 저는 아주 작은 일상 생활을 좋아함.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구성함. 일상 생활. 과거와 현재. 모두 중요한 가치.
-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례별 접근 방식에 따라 입법화하는 것을 삼가야 함
- 요점은, 정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거버넌스와 리더십은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함
- 내년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념일이 있음. 기념하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함
- 크리스마스 전에 기후 법안을 준비해야 함. 그리고 나서 기후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함

- 우리는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함. 야생 동물을 돌보아야 함. 플라스틱 오염을 막아야 함. 이번 여름에 히멀란트에서 사슴 한 마리의 뱃속에 4kg의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4kg!
- 정부는 De Radikale, SF, Enhedslisten과 함께 역사적인 목표를 설정했음.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자 함
- 그리고 지친 사람들은 더 나은 은퇴 가능성을 가져야 함
- 우리는 덴마크를 덴마크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을 강화해야 함

미래에 대한 기대

- 신뢰에 기반한 일상이 있는 나라
-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 우리 사회 모델
- 더 푸른 미래가 있는 나라
- 복지를 우선인 나라
- 지역 사회가 작동한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가진 나라
- 더 안전한. 더 정의로운. 더 푸른 덴마크.
- 기업들이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
- 환경선두국가의 꿈 - 오늘날 우리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환경, 물, 에너지 및 기후 기술을 수출함. 그리고 덴마크의 제약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위치에 있음
- 덴마크 경제는 좋은 직장과 중요한 수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우리에게서 깨끗한 환경이 필요함.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질. 깨끗한 식수. 숲과 바다. 그것이 삶의 질임.
- 오늘, 10월 1일. 가족과 친구들과 숲을 산책함.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임
- 우리는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함. 야생 동물을 돌보아야 함.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어야 함.
- 플라스틱 폐기물을 먹는 것은 사슴 뿐만이 아님. 새도 마찬가지임. 물고기도 마찬가지임. 어떤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뢰벤의 시간연결성은 연대와 협력, 평등과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국가였지만 고실업과 인종차별, 재정적자, 기후변화 대비 실패 등의 제를 안고 있는 국가로 고착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 때마다 협력과 결속으로 극복한 저력을 발휘해 현대화를 통한 미래개혁, 인간과 환경, 지식과 경쟁력, 현재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자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나라로 세계를 선도하고 몰모델이 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거(연대와 협력, 평등과 자유의 조화, 친시장경제적 복지국가의 고착화된 실업, 재정적자, 기후정책실패, 위기극복의 저력), 현재(현대화, 공동책임, 지속적 탄소배출축소), 미래(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테르손의 시간성도 뢰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크리스테르손은 스웨덴의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가진 국가, 협력하는 DNA를 가진 국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당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민책임성, 분열보다는 단결, 자유와 책임의 역동성을 통해 폭동과 충격이 아닌 녹색 혁신,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새로운 일자리가 스웨덴을 국제적인 헤드라인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숨쉬는 국가로 미래를 서술하고 있다. 과거(저력 있는 국가), 현재(단결과 통합, 자유와 평등사이의 역동성), 미래(자유와 책임이 숨쉬는 국가)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스무센은 신뢰, 평등, 자유, 시장주체 간의 협력의 전통을 가진 전지구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인 덴마크의 이미지를 과거의 틀로 설정하지만 이민자의 통합실패가 고착화된 과거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학교개혁, 특히 폴케스콜레 개혁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창출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유세계의 롤모델이 되자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과거(신뢰, 평등, 자유, 시장주체간 협력의 독특한 국가), 현재(이민자 통합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의료서비스개혁 당면과제), 미래(신뢰, 조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사회적 응집력의 강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유의 강화)의 시간적 틀을 보여준다.

프레데릭센은 위 세명의 연설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시간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기억과 경험으로 인식된 과거의 모습, 매일 샤워를 할 수 있게 된 국민, 복지를 가능하게 한 기업인과 유능한 노동자의 헌신, 탐욕과 불평등보다 돌봄과 신뢰, 공동체의 연대로 이룩된 나라가 젊은이들의 실업과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안게 된 병든 복지국가의 이미지로 과거를 회상하며, 일상의 회복을 위한 생활정치적 복원이 중요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산책할 수 있는 숲의 복원하기 위한 나무심기, 플라스틱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슴과 같은 비극이 없는 친환경적이고 자유와 평등이 숨쉬고 더 푸른 미래가 있는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프레데릭센의 과거(따뜻한 물로 샤워를 가능하게 했던 복지, 시민 돌봄, 일상의 질이 개선되었던 과거는 청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없는 약화된 복지의 모습), 현재(시민의 삶의 질, 세대별 맞춤 복지, 실패한 사례별 대응책 개발, 동물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당연과제), 미래(안전, 정의, 녹색, 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국가)의 시간적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

5. 결과의 분석과 논의

5.1 연구문제의 재 논의

이 연구는 제의적 방법을 통해 스웨덴과 덴마크 총리의 첫 의회연설을 분석해 국가간 차이 그리고 좌우정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정치문화의 본질과 정치적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덴마크와 스웨덴의 총리연설은 매우 색다른 수사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 총리들의 연설은 더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으로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뢰벤 그리고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연설은 딱딱한 공적 행사처럼 느껴진다면 덴마크 라스무센과 프레데릭센 총리의 연설은 즐거운 정치행사처럼 인식될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수사법의 구사에 있어서도 스웨덴 총리들은 반복법과 은유법, 환유법과 직유법 그리고 아나포라(서두반복법)와 같은

정형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총리들은 대화체, 자문자답법, 아나디플로시스 등 더 정교하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수필을 읽으며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주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제의적 레토릭 연구의 첫번째 요소인 청중통합의 메시지는 모든 화자에게 발견된다. 통합의 수단을 적용하는 지도자들의 접근방식도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총리들은 ‘우리’, ‘정부’, ‘스웨덴’을 적절하게 교차해 가면서 동질성과 소속감을 호소한다면 덴마크 총리들은 ‘나’, ‘정부’, ‘덴마크’로 연결되는 고리를 이용해 지도자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청중과 직접적 소통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국가통합을 가로막는 통합의 장애물을 제시해 극복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통합은 구체적 정책과 조치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의적 레토릭 연구의 두번째 요소인 총리연설에서 나타난 가치적 특성의 비교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시도한 화자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이고, 가장 부정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 화자는 뢰벤 스웨덴 총리라 할 수 있다. 두 지도자 모두 시민당을 대표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가 덴마크보다 스웨덴이 훨씬 더 많다고 하기 보다는 수사법의 목적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을 연설에 담았다고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어와 부정어를 기반으로 적용한 감성어 비교는 방법론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제의적 레토릭 연구의 세 번째 요소인 시간성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가적 자부심과 사회적 문제의 두 양면적 모습을 과거시제에 담아 현재 어떤 대응책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적 순위결정의 이유로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네 명의 총리들이 그리는 미래국가의 모습을 미래시제에 담아 도달하고자 하는 종착지로 서술함으로써 청중의 입장에서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꿈꾸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프레데릭센은 가장 섬세하게 시간연결성을 묘사해 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각각 다른 모습들을 표상하는 표현들을 듣는 사람들의 머리에 그릴 수 있는 구체적 서술방법이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이 세가지의 제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좌파를 대표하는 뉘벤과 프레데릭센 연설은 평등과 연대,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적 구심점으로 삼고 있으며, 우파를 대표하는 크리스테르손과 라스무센의 연설은 자유, 책임, 선택, 기업과 시장을 중요한 핵심기제로 보고 청중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달라도 정치이념적 공통점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겠다.

5.2 연구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후행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좌우를 대표하는 총리들의 의회연설 4개를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국가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문화사적인 연구는 불가피하다. 양국 총리연설의 비교연구는 차이점과 상이점을 보여줄 뿐 그 차이의 원인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별 차이나 좌우이념정당들 간의 단편적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통시적(diachronic) 자료를 통해 이 연구에서 발견한 특징들의 원인을 찾아보고 차이의 반복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보수당과 시민당을 대표하는 각각 1명씩의 총리연설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발견된 국가별 그리고 정당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1회성 차이인지, 정치문화에 뿌리를 둔 고착화된 차이인지 알지 못한다. 국왕의 의회해산권이 박탈된 후 진정한 의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 행해진 총리연설의 총체적 자료를 수집해 포괄적 비교연구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프로젝트의 파일럿 연구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포함시켜 전체 북유럽국가들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의식, 행태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레토릭 구사능력, 설득 및 소통방식 등에 대한 이해는 북유럽을 연구하는 학자들 뿐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의 소통능력 변화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박성희 (2009). “대통령 취임 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 수사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1, 195-222.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2004/2009).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I. Rhetorique Livre I, par Aristotle. Les Belles Lettres, Paris』. 이종오 역. 서울: 리젠크.
- 이윤지 (2011).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수사에 관한 연구: 토마스 제퍼슨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대통령 10명의 취임 연설문을 중심으로”, Diction 5.0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Åqvist, Lennart (1965). *A New Approach to the Logical Theory of Interrogatives*. Filosofiska Föreningen. Uppsala, Sweden.
- Balot, Ryan K. (2013). Epideictic rhetoric and the foundations of politics. *Polis*, 30(2), 274-304.
- Beard Adrian (2000). *The Language of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Barilli, Renato (1989). *Rhetoric*. Trans. Giuliana Menozz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ale, Walter H. (1978). Rhetorical Performative Discourse: A New Theory of Epideictic. *Philosophy and Rhetoric*, 11, 221-246.
- Bostdorff, Denise M. (2011). Epideictic Rhetoric in the Service of War: George W. Bush on Iraq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Victory over Japan. *Communication Monographs*, 78(3), 296-323.
- Brodsky-Porges, Edward (1981). The Grand Tour Travel as an Educational Device 1600-1800. *Annals of Tourism Research*, VIII(2), 171-186.
- Bulmer, Elliot (2017). Constitutional Monarchs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International IDEA Constitution-Building Primer 7. 2nd ed. Stockholm: International IDEA.
- Campbell, K.K. & Jamieson, K.H. (1990). *Deeds done in words: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genres of governanc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 of Chicago Press.
- Campbell, Karlyn Kohrs and Jamieson, Kathleen Hall (2008). *Presidents Creating the Presidency. Deeds Done in Words*. Chicago and London: Chicago University Press.
- Chilton P. (2004). *Analyzing Political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Cohen, Miché (1992). The Grand Tour: Constructing the English gentleman Footnote¹ in eighteenth-century France. *Journal of the History of Education Society*, 21(3), 241-257.
- Duff y, Bernard K. (1983). The Platonic Functions of Epideictic Rhetoric. *Philosophy and Rhetoric*, 16, 79-93.
- Fowler, Robert L. (1987). The Rhetoric of Desperation.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91, 5-38.
- Garrison, Jim. (2003). Prophetic Epideictic Rhetoric: Poetic Education beyond Good and Evil. *Educational Theory*, 53, 221-241.
- Gunter, Thomas C., Stowe Laurie A. & Mulder, Gusbertus (2007). When syntax meets semantics. *Psychophysiology*, 34(6), 623-730.
- Hansen, F., & Kock, C. (2003). Evaluation of public spokespersons. *Nordicom Review*, 24(1), 27-32.
- Johannesson, Kurt (2005). *Svensk retorik*. Stockholm: Norstedt förlag.
- Karttunen, L. Syntax and semantics of questions. *Linguistic and Philosophy* 1, 3-44 (1977). <https://doi.org/10.1007/BF00351935>.
- Kjeldsen, J. E., Kock, C., & Vigsø, O. (2021). Political rhetoric in Scandinavia. In E. Skogerbø, Ø. Ihlen, N. N. Kristensen, & L. Nord (Eds.), *Power, communication, and politics in the Nordic countries* (pp. 365-383). Gothenburg: Nordicom, University of Gothenburg. <https://doi.org/10.48335/9789188855299-18>
- Lauer, Ilon (2015). Epideictic Rhetoric. 34(2), 1-18.
- Peck, Linda Levy (1996). Hobbes on the Grand Tour: Paris, Venice, or London?

-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7(1), 177-183.
- Pernot, Laurent (2015). *Epidictic Rhetoric: Questioning the Stakes of Ancient Praise*. University of Texas Press.
- Roberts, K. G. (2004). Liminality, authority, and value: Reported speech in epideictic rhetoric. *Communication Theory*, 14(3), 264-284.
- Rollins, Brooke (2005). The ethics of epideictic rhetoric: Addressing the problem of presence through Derrida's funeral orations. *Rhetoric Society Quarterly*, 35(1), 5-23.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ard, Cynthia M. (1996). The Public Value of Epideictic Rhetoric. *College English*, 58(7), 765-794.
- Ueno, Hiroki (2023). Educating a Young Aristocrat during Grand Tour: Moral and Political Economy in Adam Smith. *Journal of Scottish Philosophy*, 21(1), 75-96.
- Van Dilk and Teun A. (1997). "What is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 Blommaert and C. Bulcaen (Eds.), *Political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Zaretsky, Robert (2014). A Grand Tour. *Virginia Quarterly Reviews*, 90(1), 196-202.

《부록》

1. 사회통합의 구조

	통합의 수단	통합의 장애	통합의 접근
스태판 뢰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den, Swedes 51회 • Swedish 17회 • We 32회 • Government 30회 • Opportunity 11회 • Child 9회 • I (1인칭 주어) 단1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mployment • School performance • Failing in the welfare system • Remaining gaps and inequality among women men • Failing 14 environmental goals out of 16 • More and more young people, especially women, LGBTQ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not faring well in today's society. Health care needs to be strengthened to make it easier to receive help for eating disorders, anxiety and depression. People suffering mental illness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have improved opportunities for care, housing,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ing together and joint responsibility • Modernizing Sweden • Fulfilling the promise of freedom for children • Investing together in people and environment • Uniting Sweden • Make Sweden as a global role model, in equalit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 Swedish hallmark with equal worth of people, self-confidence, solidarity and belief in changing future

	통합의 수단	통합의 장애	통합의 접근
올프 크리스테 르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den, Swedes 81회 • Swedish 50회 • We 35회 • I (1인칭 주어) 11회 • Government 67회 • Responsibility 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they fail entirely, the damage will be monumental. And if that happens, Sweden will no longer be Sweden . • Bloody record in fatal shootings • A new recession and social exclusion • Energy crisis • Harsh security challe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 membership is a necessary con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복지제도인 주춧돌(welfare as cornerstone)의 강화필요 (Several of the cornerstones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 1991년 재정위기, 2019-2022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한 사례처럼 이번 사회위기, 안보위기 등을 단결과 협조로 해결가능 • The ability to prioritize the most important tasks of government in difficult times will be crucial to our success. • A strong democracy requires a diversity of strong, free and independent media • Culture and our shared history are the basis of our collective identity. •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able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without being subjected to discrimination • The Government intends to increase national

	통합의 수단	통합의 장애	통합의 접근
			responsibility for health care • A greater emphasis will be placed on more equitable health care, women's diseases and research on women's diseases and health
라스 피케 라스 무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mark 65회 • Danes 7회 • Danish 16회 • I (1인칭 주어) 41회; me (목적어) 3회 • Government 30회 • Responsibility 8회 • Opportunity 8회 • Cooperation 6회 • Child/children 6회 • Young people 6회 • LONG LIVE DENMARK. • Hurrah!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arallel society makes freedom and equality weak. • No job, no cohesion • Refugee problem in entire Europe including Denmark • Denmark is divided into development and dismantlement • Failure in integration policy • Terror is an evil which we must continue to fight. • Denmark is divided into development and dismantlement • Weakness in private sector jobs • Abandoned buildings stand empty in many Danish tow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hesive society • Society of diverse cohesions (economic, geographical, value-based, social) • A society with freedom, prosperity and harmony • Responsibility to help people who are fleeing •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our country is cohesive. • We must tackle the root of the influx of refugee problem • I am proud of Denmark. A country which takes responsibility in the world. That helps people in need. And that protects the values that unite us. • This is the Denmark we

	통합의 수단	통합의 장애	통합의 접근
			<p>are proud of. And which we must stand guard ov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mark a cohesive society, We have built our society on equality. On trust in each other. On respect for the individual. • I want to see a Denmark where we reward those who go to work and make their contribution to society. And where companies have the freedom to make progress and create jobs.
<p>메테 프레데릭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mark, Danes 34회 • Danish 12회 • I (1인칭 주어) 76회; me (목적어) 7회 • Government 15회 • Responsibility 6회 • Trust 37회 • Trust is strength • Responsibility - “we need to take upon us the responsibility of hope and the will to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we, those of us who have the opportunity, step away from our responsibility - then we will be feeding powerlessness. Instead, we need to take upon us the responsibility of hope and the will to act. • The challenge is enormous. The ice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 when we meet in our neighborhood. In the workplace. At the parent's meeting. Human to human • Everyday life. Past and present. In a single word: trust. • We have built a society based on trust. With duties. And rights. In that order • I pay my taxes.

통합의 수단	통합의 장애	통합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on 15회 • Child/children 15회 • Young people 4회 • Hurrah! 3회 	<p>melting. Storms.</p> <p>Hurricanes. It can seem insurmountab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 refugees who come to Denmark and are granted asylum, must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nd help rebuilding it, as soon as it is possible. This provides space, so that we can help the refugees of the future. • In the wider world, battles we thought were won, are being lost. Free trade. Freedoms. Women's free right to abortion. 	<p>Trusting that you pay you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pay towards your medical appointment. <p>Trusting that you pay towards mine. We have that solida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 when we meet in our neighbourhood. In the workplace. At the parent's meeting. Human to human. We are being met with trust. • Denmark is connected. There is that trust. Closeness. Mutual respect. It provides stability. Creativity. Jobs. Progress.

2. 대조적 가치의 구성 (핵심요약)

	부정적 메시지 (criticism, challenges, or pessimism, with words like fail, crisis, decrease, inequality, war, conflict, separate, fight, inflation, deficit, injustice, segregation, exclusion, racism, prejudice, crime, criminal, trafficking, explosion, discrimination,...)	문제해결의 전제조건 (must/should/will)	긍정적 메시지 (improve, progress, opportunity, better, hope, develop, investment, tackle, trust, harmony, unity, solidarity, faith, integration, justice, inclusion, love, ...)
스태판 뢰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tate of affairs in Sweden is serious.” • Unemployment • Failing school performance • Failing in the welfare system • Remaining gaps and inequality among women men • Crisis – EU, biodiversity,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 Public finance deficits • Major conflicts are ongoing in Ukraine, Iraq, Syria and elsewhere. • Racism and prejud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ing together and joint responsibility • Modernizing Sweden • Sweden’s competitiveness must be strengthened • Sweden must be a strong voice in the world for freedom, peace, human rights and solidarity. • The gender pay gap must be reduced. •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everyday life on equal terms with respect to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 Women and 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ver before have so many young people sought to obtain a higher education • The idea of pursuing an integration policy • We know that Sweden possesses a wonderful strength. • Our readiness to seek cohesion and cooperation in difficult times has time and again ensured a better society for future generations. • New management models that create greater freedom for public sector workers

		<p>should have the same employment rates.</p>	<p>will be develop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the firm desire of this government that Sweden be a global role model, in our development, our equality and our leadership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 A country whose hallmarks are the equal worth of all people, self-confidence, solidarity and the belief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future.
<p>울프 크리스 테르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is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it could very easily worsen considerably. · The fact is that Sweden has historically high levels of unemployment as we potentially face a recession. · Inflation in Sweden is verging on ten per cent. In September, interest rates were raised by 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en Russia launched its war of aggression. And not least when we took the historic decision to apply for membership of NATO. I hope that we as parties – and as citizens – are willing to support one another again. · Those who are excluded from society, and have lived 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den will be a country where law and gender equality apply to all, ·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providing leadership and solving issues. · Change was necessary, and change is now possible · The Government will take responsibility. Maintaining order in central government

	<p>percentage point – the largest increase since inflation targets were introduced in 1993. Segments of the business sector are now struggling desperately to survive skyrocketing electricity cos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exclusion 	<p>benefits year after year, need to transition from benefit dependence to supporting themsel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in this Chamber have a joint responsibility to prove that we can do it. • This comes at a time when Sweden's largest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re due to high levels of immigration, in combination with failed integration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social exclusion and benefit dependence. 	<p>finances is a key tas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wedish business is a world leader in sustainability and green transition • All the enterprising people who create jobs, prosperity and impetus deserve our respect. A free economy and free entrepreneurship are the foundation of our prosperity. • A major benefit reform will therefore be implemented. This will take place during the electoral period: in part through lower taxes primarily on low and middle income earners, and in part through a benefit ceiling that makes it is more worthwhile to work than to live on benefits.
<p>라스 뢰케 라스 무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sad that many young people do not get this opportunity. •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ain road to good opportunities is via good education programmes for all young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mark is a country of opportunities. • Our ability to take joint responsibility. Our trust in each other.

<p>situation of the Faroe Islands and Greenland. However, both countries face huge economic challenges in the slightly longer ter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must be able to afford investment in health. We must invest in education. It is only feasible if our country is based on economic cohe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must remove the obstacles to citizens' and companies' mobility between Denmark, the Faroe Islands and Greenland. • Today, there is not sufficiently good education for those in need of an academic boost and better preparation. • I want a Denmark based on geographical cohesion. Where the individual has the freedom to live and work throughout the country. • I want a society with a strong health service for all. Irrespective of where you live and how much money you have. <p>I want to see a Denmark where we reward those who go to work and make their contribution to society.</p>	<p>Our harmonious socie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is the Denmark we are proud of. And which we must stand guard over. • In so doing, we will strengthen the unity of the Realm. It is an important matter which we are working on together. • I also wish close cooperation within the unity of the Realm and among the Nordic countries on developments in the Arctic • The Government wants to introduce a social assistance ceiling. We want to put a cap on how much a recipient of social assistance can receive in public support.
--	---	---

<p>메테 프레데 릭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summer, a deer was found in Himmerland with four kilos of plastic in its stomach. Four kilos! • And it is not only deer, who eat plastic waste. So do birds. So do fish. • What kind of a world is th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st think of today. October 1st. Going for a walk in the woods with family and friends. Is there anything better? • We have to plant more trees. Take care of our wildlife. Stop plastic pollution. • If we cannot solve the problems which the young generation has asked us to solve. Then we will not only be letting down the young people. • Then we will betray the faith in the future. • Children and adolescents demand change. Now we must deli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orporations. Denmark has the world's best green corporations. And now we need the rest of the business world to follow. • Who manages the money we will be living off in the future. It makes sense that they invest the money, so that we may actually have a future. • Now others - the young people, the businesses - are way ahead of us. • We need to get back in front.
--------------------------	---	--	---

3. 현재의 연결성 (핵심요약)

	과거의 조망	현재의 접근	미래의 조망
스테판 뢰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ur readiness to seek cohesion and cooperation in difficult times has time and again ensured a better society for future generations. • Unemployment has become entrenched at a high level. • A country in which we close gaps and fulfil the promises of freedom we have made to our children. • Over the last twelve months, people around the country have stood up against racism, for the equal worth of all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den's economic strength stems from our ability to be the best: the fact that we sell outstanding, effective and innovative goods and services on global markets • We will take on the challenge once again and build a country • And now we will take on the challenge once again and build a country that can look to the future with hope and expectation • Work means community and belonging - the power to shape one's life and future • What we need now are reforms for the future to modernise Swe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den will remain a global role model, in our development • Sweden will promote free and fair world trade • ... that can look to the future with hope and expectation. • ... ensured a better society for future generations. • Sweden must be a world leader in health and medical care. Access to professional staff, the very latest knowledge and the most advanced treatments must be enhanced. • In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 in security in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울프 크리스테 르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tions of Swedes have faced tough times and stood the test. • We in Sweden ha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overnment is assuming responsibility for a fantastic country. We are now all,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den will be a country where the law and gender equality apply to all.

	<p>solved difficult problems befo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y of you here have seen this firsthand. • Even more of you know people who have. In the crisis of the 1990s, for example. • Sweden tackled the oil crisis of the 1970s... broke the link between growth and increasing emissions..., and become one of the world's first almost completely fossil-free industrial countries 	<p>in various ways, responsible for Sweden's future. But we can also learn from Sweden's histo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hope that we as parties — and as citizens — are willing to support one another again. • A government that wants to see what unites us, not just what divides us. That wants to bring people together, not drive them a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untry where every child gets to see their parents go to work, and where it always pays to work and do your best. • A country where climate-smart wind, water and nuclear energy provide clean, reliable and cheap electricity. • A country where green innovations, world-leading education and research, and new jobs - not riots and shootings - are what put Sweden in the international headlines.
<p>라스 뢰케 라스 무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ough generations we have created a quite unique spot on the planet. With freedom. Prosperity. Harmony. • We have built our society on equality. On trust in each other. On respect for the individ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sad that many young people do not get this opportunity. • Denmark is a country of opportunities. It must continue to be so also for the next generations. • Folkeskol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reform.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 it is the Government's ambition that next year we will strengthen upper secondary schools through a reform which will raise academic standards. • Our ability to take joint responsibility. Our trust in e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a good tradition. • In Denmark, we have had a tradition that employees, employers and politicians conclude tripartite agreements on essential societal issues. • Together, we have reformed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form that is meant to restore the prestige of skilled workers. 	<p>reform that i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reach their full potent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d on a broad majority in the Folketing, we have introduced a good Folkeskol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reform. A reform that i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reach their full potential. • Denmark has a responsibility to help people who are fleeing. 	<p>other. Our harmonious society. This is the Denmark we are proud of. And which we must stand guard ov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want a Denmark based on geographical cohesion. Where the individual has the freedom to live and work throughout the country. • I want a society with a strong health service for all. Irrespective of where you live and how much money you have.
<p>메테 프레테 릭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long as I can remember, Danish politics have ultimately been about a welfare society, which was, again and again, to accomplish more with less. • If we cannot solve the problems which the young generation has asked us to sol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 fond of everyday life. Be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akes up the sum of our grand history. Everyday life. Past and present. • ... Then we will not only be letting down the young people ... • Even if mistakes have been made. We must abstain f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eryday life is based on trust • Today, we export billions worth of environmental- water-energy- and climate technology. And the Danish pharmaceutical industry is in a leading position worldwide. • The Danish economy is based on g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ocial Democrats used to have it as a part of our policy to campaign for elderly citizen's right to have a daily shower. We did not succeed in carrying that through. • On the 5th of May 2020 it will have been 75 years since Denmark was liberated. • The same trust which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have built the good and solid relations we have with Germany. 	<p>legislating based on a case-by case approa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oint is, quite to the contrary, that the governance and leadership we have today, does not provide the best results. We can and must do better. • Next, year, we commemorate two important anniversaries. They will be celebrated. We must learn from history. • We must have the climate legislation ready before Christmas. And then - a climate action plan. 	<p>workplaces and important export activ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need a clean environment. An air quality, which allows us to breathe freely. Clean drinking water. Forests and oceans. That is quality of life. • Just think of today. October 1st. Going for a walk in the woods with family and friends. Is there anything better?
---	---	---

<Abstract>

**Epideictic Analysis of the
Nordic Parliamentary Speeches:
A Comparison of the Speeches of
the Swedish and Danish Prime Ministers**

Choe, Yonhyok* · Lee, Goeun**

This study analyzes the parliamentary speeches of the Swedish and Danish prime ministers through an epideictic method in rhetorical studies. It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ft and right governments,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political culture and the meaning of political mess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government statements of the prime ministers in Sweden and Denmark show different rhetorical characteristics. The speeches of the Danish prime ministers use a storytelling technique to facilitate understanding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with more diverse rhetorical techniques. The message of audience integration, the first element of the propositional rhetoric study, is found in all speakers. The approaches of leaders who apply the means of integration also show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comparison of the valu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speeches of the prime ministers, the speaker who attempted to communicate through the most positive message was Danish Prime Minister Frederiksen, and the speaker who developed the logic based on the most negative message was Swedish Prime Minister Löfven. In the third element of the propositional rhetoric study,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Linnaeus University

** Scandinavia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temporal analysis, the future image of the country that the four prime ministers envision is described as the destination they want to reach by containing it in the future tense, allowing the audience to clearly understand what kind of government they are aiming for. The speeches of Löfven and Frederiksen, representing the left, focus on equality, solidarity, and trust as the most important value centers, while the speeches of Christersson and Rasmussen, representing the right, approach the audience by viewing freedom, responsibility, choice, enterprises, and markets as important core mechanisms. It seems that the wider diachronic data analysis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olitical culture and rhetorical elements of the Nordic countries in the future.

Key Words: epideictic, rhetoric, government statement, Sweden, Denmark

성명: 최연혁
소속: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E-mail: yonhyok.choe@lnu.se

성명: 이고은
소속: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E-mail: hello.goeunlee@gmail.com

논문 접수일: 2024.12.18. 논문심사 완료일: 2025.1.8.
수정원고 접수일: 2025.1.13. 게재 확정일: 2025.1.13.